

실업 구조 분석(Ⅱ)

홍성민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우리나라 실업 구조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현재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청소년층의 신규 실업보다는 25~44세의 여성 핵심 노동력, 고졸 이상 남자 및 고령자 등 기존 노동력의 실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고용 안정 정책은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 핵심 노동력과 고졸 이상 남자의 고용 안정을 이루는 것이 고용 불안 심리의 확산을 막고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다.

머리말

본격적인 구조 조정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고용 불안은 성장률의 저하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서비스화 등에 의한 고용 흡수력 저하 및 실업률 상승 등의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대기업의 잇따른 도산, 명예퇴직제의 확산과 정리해고제의 도입(시행은 2년 유예) 등의 상황으로 인해 고용 불안 심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 불안은 단지

실직자 개인의 경제적·심리적 고통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실직 우려에 시달리는 취업자들의 근로 의욕과 생산성을 감퇴시키는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 생활에 있어서 가장의 임금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은 사회에서, 실직은 곧 가계 생활의 파탄과 연결되므로 고용 불안 확산이 가져올 폐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고용 안정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고용 불안 심리의 확산을 막는 것은 경제 전체의 발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적절한 고용 안정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1987년에서 1996년까지 10 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실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성별·연령 계층별·교육 정도별 실업 구조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인 실업 구조의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고용 안정 정책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¹⁾

실업 구조의 변화

먼저 연령 계층별 실업 구조의 주요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핵심적인 노동력을 구성하는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연령 계층의 경우 실업자 중의 비중에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물론, 경기 변동의 영향으로 약간씩은 변동하고 있지만 어떤 추세적인 변화를 감

<표 1> 연령 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전연령 계층	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세 이상
1987	519(100.0)	200(38.5)	175(33.7)	79(15.2)	52(10.0)	12(2.3)
1988	435(100.0)	179(41.1)	153(35.2)	56(12.9)	37(8.5)	10(2.3)
1989	463(100.0)	174(37.6)	165(35.6)	65(14.0)	44(9.5)	15(3.2)
1990	454(100.0)	185(40.7)	156(34.4)	61(13.4)	38(8.4)	16(3.5)
1991	436(100.0)	202(46.3)	132(30.3)	52(11.9)	38(8.7)	13(3.0)
1992	465(100.0)	209(44.9)	148(31.8)	58(12.5)	36(7.7)	14(3.0)
1993	550(100.0)	242(44.0)	182(33.1)	74(13.5)	38(6.9)	14(2.5)
1994	489(100.0)	196(40.1)	168(34.4)	75(15.3)	35(7.2)	14(2.9)
1995	419(100.0)	165(39.4)	129(30.8)	70(16.7)	36(8.6)	20(4.8)
1996	425(100.0)	158(37.2)	144(33.9)	68(16.0)	37(8.7)	17(4.0)
실업률						
1987	3.1	7.6	3.4	2.0	1.6	0.6
1988	2.5	7.2	2.8	1.4	1.1	0.5
1989	2.6	6.8	3.0	1.6	1.3	0.7
1990	2.4	7.0	2.8	1.4	1.1	0.6
1991	2.3	7.4	2.4	1.1	1.1	0.5
1992	2.4	7.7	2.7	1.2	1.0	0.5
1993	2.8	9.0	3.1	1.5	1.1	0.5
1994	2.4	7.2	2.9	1.4	1.0	0.5
1995	2.0	6.3	2.2	1.3	1.0	0.6
1996	2.0	6.1	2.5	1.2	1.0	0.5

자료: 통계청(1996), 「경제 활동 인구 연보」.

주: () 안은 실업자 총수 중의 비중임.

지할 수 있을 정도로 변동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표 2>에서처럼 다시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 연령 계층에 해당하는 남자 실업자 비중은 약간씩 감소한 반면, 여자의 경우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특히 여성의 25~34세 연령 계층의 비중은 1987년의 13.1%에서 1996년의 23.1%로 10%p나 상승하였고 35~44세 연령 계층도 같은 기간 동안 5.7%에서 12.7%로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연령 계층의 실업률이 1%

<표 2> 성별 연령 계층별 실업자 비중 추이

(%)

남자	전연령계층	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세 이상
1987	100.0(3.9)	27.2(10.0)	40.1(4.5)	18.1(2.9)	12.1(2.5)	2.5(0.9)
1988	100.0(3.0)	30.5(9.8)	41.6(3.6)	14.6(1.8)	10.5(1.6)	2.9(0.8)
1989	100.0(3.1)	27.4(9.0)	41.9(3.7)	15.2(1.9)	11.6(1.8)	4.0(1.0)
1990	100.0(2.9)	29.6(9.5)	40.5(3.5)	15.3(1.8)	10.3(1.6)	4.4(1.0)
1991	100.0(2.5)	34.4(9.7)	37.2(2.8)	13.9(1.4)	10.8(1.4)	3.8(0.7)
1992	100.0(2.6)	32.1(9.5)	40.0(3.2)	14.8(1.5)	9.5(1.3)	3.6(0.7)
1993	100.0(3.2)	32.5(12.0)	40.8(3.9)	16.0(1.9)	7.7(1.4)	2.9(0.7)
1994	100.0(2.7)	28.4(9.3)	41.9(3.5)	17.7(1.8)	8.7(1.3)	3.6(0.7)
1995	100.0(2.3)	28.2(8.0)	36.8(2.6)	19.3(1.6)	10.4(1.3)	5.7(0.9)
1996	100.0(2.3)	28.3(8.3)	39.0(2.9)	17.6(1.4)	10.7(1.3)	4.5(0.7)
여자						
1987	100.0(1.8)	75.4(6.0)	13.1(1.0)	5.7(0.5)	3.3(0.3)	1.6(0.2)
1988	100.0(1.7)	69.2(5.5)	18.3(1.3)	8.3(0.7)	3.3(0.3)	0.8(0.1)
1989	100.0(1.8)	62.7(5.4)	20.1(1.5)	11.2(1.0)	4.5(0.4)	1.5(0.2)
1990	100.0(1.8)	67.7(5.5)	19.5(1.5)	9.0(0.7)	3.8(0.4)	1.5(0.2)
1991	100.0(1.9)	69.1(6.0)	16.8(1.4)	8.1(0.7)	4.7(0.5)	1.3(0.2)
1992	100.0(2.1)	69.4(6.6)	16.3(1.5)	8.1(0.7)	4.4(0.5)	1.9(0.3)
1993	100.0(2.2)	68.6(7.2)	16.6(1.6)	8.0(0.7)	5.1(0.7)	1.7(0.3)
1994	100.0(1.9)	65.2(6.0)	18.1(1.5)	10.3(0.8)	3.9(0.4)	1.3(0.2)
1995	100.0(1.7)	61.9(5.3)	18.7(1.4)	11.5(0.8)	5.0(0.5)	2.9(0.3)
1996	100.0(1.6)	56.7(4.8)	23.1(1.6)	12.7(0.8)	4.5(0.4)	3.0(0.3)

자료: 통계청(1996), 「경제 활동 인구 연보」.

주: () 안은 실업률임.

1) 실업 구조 변화에 대한 연도별 자료는 1996년까지만 존재하므로 1996년말 이후 최근에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 가능하지는 않음. 또한 지표 상으로 실업률은 분석 대상 기간중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 다가올 실업률상승시대에 대한 분석은 자료가 축적된 이후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여기서는 다만 실업 구조의 장기적인 변화 추세에 주목하여 고용 안정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고자 함.

대나 그 이하인 것으로 보아 그동안 가사나 육아 등으로 인해 경제 활동 참여가 많지 않았던 이 연령 계층 여성들이 다시 활발히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데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업 등의 이유로 본격적으로 노동 시장에 참여하기 이전이라고 판단되는 15~24세 연령 계층의 경우, 실업자 중의 비중이 1987년 이후 한동안 상승하여 1991년 46.3%로 정점에 도달하였고 그 이후에는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1996년의 경우 37.2%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율 저하에 따라 이 연령 계층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고학력화 현상으로 인해 특히 15~19세 연령 계층의 경우 경제 활동 참가율도 꾸준히 하락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연령 계층의 실업률은 다른 연령 계층의 두 배 이상 높은 6%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령 계층의 고용 불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해보아도 남녀 모두 이 연령 계층이 다른 연령 계층보다 훨씬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남자의 실업률이 1996년에 8.3%(여자 4.8%)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5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대체적

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1987년의 2.3%에서 1996년의 4.0%로 상승하였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아도 남녀 실업자 비중이 두 배가량 상승하였다. 그러나 실업률은 1996년에도 0.5%에 머무르는 등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 연령 계층의 실업자 비중 상승이 경제 활동 참가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 정도별 실업 구조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참조). 첫째, 중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저학력 실업자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국졸 이하자의 비중은 1987년 11.0%에서 1996년 6.6%로 하락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중졸 이하자의 비중도 19.3%에서 12.9%로 6.4%p나 감소하였다. 이는 특히 남자 저학력 실업자의 급격한 감소에 힘입은 바가 크다. 같은 기간 동안 남자 국졸 이하 실업자의 비중은 5%p, 중졸 실업자의 비중은 8.1%p나 감소한 데 비해, 여자 저학력 실업자의 비중은 약간 감소한 데 그친 것이다.

둘째,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실업자 비중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석 기간 동안 고졸 실업자 비중은 48.4%에서 54.6%로 6.2%p, 초대졸 이상 실업자 비중은 21.4%에서 25.9%로 4.5%p 증가하였다. 이는 노동 공급의 고

〈표 3〉 교육 정도별·성별 실업자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천명, %)

	전학력	국졸이하	중졸	고졸	초대졸 이상
1987	519(100.0)	57(11.0)	100(19.3)	251(48.4)	111(21.4)
1988	435(100.0)	37(8.5)	77(17.7)	220(50.6)	101(23.2)
1989	463(100.0)	41(8.9)	74(16.0)	231(49.9)	116(25.1)
1990	454(100.0)	36(7.9)	64(14.1)	240(52.9)	114(25.1)
1991	436(100.0)	33(7.6)	61(14.0)	241(55.3)	101(23.2)
1992	465(100.0)	29(6.2)	67(14.4)	261(56.1)	108(23.2)
1993	550(100.0)	35(6.4)	73(13.3)	302(54.9)	140(25.5)
1994	489(100.0)	35(7.2)	65(13.3)	259(53.0)	130(26.6)
1995	419(100.0)	32(7.6)	53(12.6)	226(53.9)	108(25.8)
1996	425(100.0)	28(6.6)	55(12.9)	232(54.6)	110(25.9)
남자					
1987	76.5	11.6	20.9	47.6	19.9
1988	72.4	9.2	18.7	50.8	21.6
1989	71.1	8.5	16.1	48.9	26.1
1990	70.7	8.4	15.0	51.7	24.9
1991	66.1	8.7	14.9	52.8	24.0
1992	65.6	6.9	15.1	54.8	23.0
1993	68.2	6.7	13.9	53.9	25.6
1994	68.3	6.9	14.1	52.7	26.3
1995	66.8	7.9	13.6	53.2	25.4
1996	68.2	6.6	12.8	55.2	25.9
여자					
1987	23.5	9.8	13.9	50.0	26.2
1988	27.6	7.5	15.0	50.0	27.5
1989	28.9	9.7	15.7	52.2	22.4
1990	29.3	6.8	12.0	55.6	25.6
1991	34.2	6.0	12.1	60.4	21.5
1992	34.4	5.0	12.5	58.8	23.8
1993	31.6	6.3	12.1	56.9	24.7
1994	31.7	7.7	11.6	53.5	27.1
1995	33.2	7.2	10.8	55.4	26.6
1996	31.5	6.7	13.4	53.7	26.1

자료: 통계청(1996), 「경제 활동 인구 연보」.

주: 1) () 안은 총실업자 중의 비중임.

2) 남녀 전학력의 수치는 총실업자 중의 비중임.

학력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성별로 볼 경우
특히 고졸 이상 남자의 비중의 증가가 두

드러지고 있다.
셋째, 성별로만 살펴볼 경우 여자의 경

제 활동 참가가 증가하면서 여자 실업자의 비중이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한 데 비해, 여자의 교육 정도별 실업자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여자의 경우 고학력자도 취업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아예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여 비경제 활동 인구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전직 유무별 실업 구조²⁾의 변화 추세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첫째, 전직 실업자 비중은 1989년 54.9%에서 1996년 60.9%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직 실업자 비중의 상승은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남자 전직 실업자의 남자 실업자중 비중은 57.8%에서 64.1%로 6.3%P 상승하였으며, 여자 전직 실업자의

여자 실업자중 비중도 47.8%에서 54.5%로 6.7%P 상승하였다. 즉, 남녀 모두 신규 실업자보다는 기존의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실업자로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직 실업자 자체의 증가보다는 앞의 연령 계층별 실업 구조 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새로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연령 계층 자체가 줄어들어 따라 신규 실업자가 줄어든 것에 크게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전직 실업자 내에서는 여자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석 기간 동안 남자의 비중은 74.8%에서 71.8%로 하락한 반면, 여자의 비중은 25.2%에서 28.2%로 상승한 것이다. 이는 실업자 전체 중에서도 여자의 비중이

〈표 4〉 전직 유무별 실업자 추이

(단위: 천명, %)

	전직 실업자 총수	남자	여자
1989	254(100.0) <54.9>	190(74.8) <57.8>	64(25.2) <47.8>
1990	240(100.0) <52.9>	184(76.7) <57.3>	55(22.9) <41.4>
1991	223(100.0) <51.1>	161(72.2) <55.9>	62(27.8) <41.6>
1992	251(100.0) <54.0>	177(70.5) <58.0>	74(29.5) <46.3>
1993	297(100.0) <54.0>	212(71.4) <56.5>	85(28.6) <48.9>
1994	278(100.0) <56.9>	198(71.2) <59.3>	79(28.4) <51.0>
1995	255(100.0) <60.9>	182(71.4) <65.0>	73(28.6) <52.5>
1996	259(100.0) <60.9>	186(71.8) <64.1>	73(28.2) <54.5>

자료: 통계청(1996), 「경제 활동 인구 연보」.

주: 1) () 안은 총전직 실업자 중의 비중임.

2) < > 안은 총실업자 중의 비중임.

2) 이는 전에 직장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실업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신규 실업자와 전직 실업자로 구분됨.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10여 년간의 우리나라 실업 구조 변화에 있어서 특징적인 현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먼저, 연령 계층별로는 25~44세의 핵심 노동력에서 여자 실업자의 비중과 고령 실업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현재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15~24세의 젊은 실업자 비중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 정도별로는 고졸 이상 남자 실업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전직 유무별로는 전직 실업자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실업 구조의 변화가 고용 안정 정책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 계층별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현재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청소년층의 신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소개 사업 등의 정책에 치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실업자 비중이 감소하는 이들 계층보다는 실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여자 핵심 노동력, 5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직업 안정 사업 등의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업 구조의 변화는 여성 핵심 노동력의 경제 활동 참가 증가, 인구 구조에 있어서 청소년층의 감소와 고령자 증가 등의 사회적인 변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되거나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교육 정도별로 볼 때 고용 안정 정책의 주요 목표 대상이 되어야 할 계층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이다. 앞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 공급의 고학력화와 더불어 특히 남자를 중심으로 이들 계층의 실업자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여자 핵심 노동력의 경제 활동 참가가 증가할 경우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자 실업자의 비중도 남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들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고용 안정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고용 안정 정책의 핵심적인 목표 대상이 되어야 할 계층은 여성 핵심 노동력과 고졸 이상 남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들의 고용 안정이 이루어져야 고용 불안 심리의 확산을 막고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